

# 지 역 경 제 일 지

## [2022. 2월 중]

### 2.3 ▶ 한국은행 경기본부, 「최근 경기지역 수출 현황과 특징」 발간

○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최근 경기지역 수출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

— (현황) 경기지역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,379억달러(전국 대비 21.4%)로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

품목별로는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전자제품(53.4%)과 자동차 등 기계류(26.9%)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 국가별로는 중국(35.6%), 미국(13.5%), 베트남(10.1%)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음

— (특징) ① 2010년 이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수출 경기가 반도체 업황에 크게 영향받는 모습, ② 주요 수출 상대국 중 미국의 불확실성 확대가 경기지역 수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침, ③ 최근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수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, ④ 주력 수출품인 전기전자제품은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

— 일부 국가에 집중된 경기지역의 수출시장 구조를 다변화하고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을 확대할 필요

또한,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우려가 있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,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

### 2.3 ▶ 한국은행 경기본부, 「2021년 중소기업 지원자금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 운용 성과」 보도

○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「중소기업 지원자금」과 「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」으로 2021년 중 28,722개 업체에 3조 3,712억원을 지원

- 이중 「중소기업 지원자금」은 1조 13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, 지원업체수는 12,380개로 전년 대비 592개 감소
- 「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」은 2조 3,699억원으로 전년대비 3,354억원 증가하였으며, 지원업체수는 17,766개로 전년대비 5,687개 증가

2.18 ▶ 경기도, 탄소중립 등 미래 전략산업 이끌 연구개발 과제에 45.5억원 지원 발표

- 경기도는 도내 기업,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32개 내외 과제를 선발하여 연간 최대 1.5억 원을 지원할 계획

특히 올해는 '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, ② 도민 제안 신기술 우수과제 실증 연계 기술개발 분야'를 신설하여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략산업을 발굴해 중점 지원할 방침

2.23 ▶ 경기도, '경기도 G-펀드(정책펀드+모펀드) 운용전략' 발표

- 경기도는 기존의 '정책펀드'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자금 운용과 탄력적 투자를 위한 '모펀드'를 새롭게 조성하는 Two-Track 방식을 채택하여 수요 맞춤형 적시 투자로도모할 계획

— 특히 올해는 새로운 정책펀드로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'경기도형 탄소중립펀드'를 3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향후 5년간 1,200억원 규모로 확대 운용할 계획

— 모펀드의 경우 현재까지 154억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, 2029년까지 약 680억원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되며, 올해는 50억원을 출자해 미래기반 산업 분야 자펀드를 조성·운용할 계획